



조간 제7864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음력5월 22일)

24년 만에 재개관... 광주 청소년 진로·꿈 키운다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재개관

공간 재구조화 마무리... 학생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청소년 특화 도서관·스포츠종합지원센터 등 본격 운영
9월 학생예술누리터 개관... 광주교육문화예술벨트 기대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진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 복합문화시설이 마련됐다. 지난 1일 새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개관한 지 24년이 넘어 건물도 낡고 노후화돼 시설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이 학습, 문화예술 체험,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회관 재구조화 TASK포스(TF)를 꾸렸다. 이어 공간 재구성 디자인 설계, 연구용역, 스포츠종합지원센터 설계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총 58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 광주학생예술누리터,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1216 '트윈세대' 모여라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 '항로1216'이다. '항로1216'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끼어있는 12~16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여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공간은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시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독서, 소풍, 놀이, 창작 등의 활동이 가능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항로1216 견학' '나침반 프로젝트' '글빛 오디세이'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경험을 지원한다. '항로1216 견학' 프로그램은 일반 개인, 단체, 초5~중3 청소년 학급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항로1216' 공간을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다. 단, 7~8월에는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나침반 프로젝트'는 12~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체험 특강이다. 반려동물 훈련사, 경찰, 범죄과학수사관 체험 등이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6~12월이다.

'글빛 오디세이'는 7~8월, 12~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가의 창작실' '북모티콘 창작실' 등을 운영하는 독서 특강이다.

시교육청은 '항로1216'이 중앙도서관에 조성된 '청소년 해방구 야호ZONE'과 함께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건전한 문화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한 성장 돕는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옆에는 광주학생스포츠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전경.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섰다. 센터는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해 댄스실, 배드민턴장(다목적실), 농구장 등 다양한 실내 체육공간을 갖추고 있다.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일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8월부터는 매주 토요일과 방학·방과후에 '농구교실'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이 센터를 이용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시민 함께 즐거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과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뿐 아니라 어린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체험교실', '찾아가는 키즈 동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독서퀴즈 오늘 문제풀이 완료', '하루부터 독서학교', '책쇼에서', '예술공연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예교실', '한글교실', '금요독서회', 필사동아리 '사각사각' 등도 만나 볼 수 있다. 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모여라 동화책 친구들', '온가족 영어독서탐방' 등도 마련했다.

이용료는 성인 프로그램만 유료이며,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무료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운영과(062-

380-8852)와 문헌정보과(062-380-889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는 학교와 연계해 농구, 피구, 줄넘기, 낚시 등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스포츠 체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매주 화~금요일 방송댄스, 드럼 등 9개 강좌를 일일 체험학습 방식으로 운영한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학생, 교원 연수와 학교별 스포츠클럽 교류전을 진행한다.

또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관 운영도 할 계획이다. 대관 문의는 체육관(062-380-8915, 8916)으로 하면 된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 9월 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옆에 있는 2층 규모의 별관은 '광주학생예술누리터'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상 등 다양한 예술체험 교육이 이뤄져 광주교육문화예술벨트 조성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을 비롯해 시민 열린 공간, 스포츠종합지원센터 등 복합공간이 조성되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머물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열정을 키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1층 플랜테리아



2층 어린이책소 도서관비치대



3층 모두의책들 오픈열람대



4층 '항로1216'

인터뷰 정은남 관장

“지상 1~7층 건물 전면 재구성
스스로 가능성 발견하는 공간”

“개관 24년 만에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광주 청소년들에게 자신 있게 선물합니다.”



정은남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은 노후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여 동안 공직생활의 마지막 열정을 쏟아부었다.

정 관장은 “지상 1층부터 7층까지의 공간을 전면 재구성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학습·문화·체험·휴식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일체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청소년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교육·문화 공간을 완성했다.

1층에는 열린 공간·북카페·정보마루 등을 배치해 청소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2~4층에는 어린이책소(어린이특화도서관)·모두의책들(일반 시민 대상 도서관)·항로1216(12~16세 청소년 대상 도서관) 등 어린이·청소년·일반 시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료실·수유실·강의실 등을 마련했다. 5·6층은 문헌정보과·관리과 등 행정지원 부서가 자리 잡았고, 7층은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갖췄다.

본관 옆에 있는 체육관도 2층 규모의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로 새롭게 단장했다.

센터는 댄스실·배드민턴장(다목적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춰 학생들이 방송 댄스·드럼 일일 체험 학습 등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관장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늘부로 학생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열리는 재개관식에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이정선 시교육감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한 도서관 퀴즈 스탬프 투어 등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NAVER 광주바로연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대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